

## 韓國人の 死亡力 構造 分析

李 三 植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韓國의 死亡力은 높은 水準의 性別 死亡力 差異와 中年 男性의 급격한 死亡力 上昇을 그 構造의 特徵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韓國人 死亡力 構造의 特異性은 直接的으로는 死亡原因의 性別·年齡別 差別의 役割에 基因하며, 間接적으로는 이들 死因의 差別性을 초래하는 것으로 推定되는 經濟開發 期間 동안의 社會·經濟 및 公共政策上的 變化 및 生活習慣의 差異에서 基因된다고 보아진다. 本 研究에서는 이들 差異를 結果짓는 여러 死因들을 중심으로 韓國人の 死亡力 構造上에서 나타난 年齡別 및 性別 特徵을 分析하는데 그 主眼點을 두었다.

1985年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에 의해 集計된 死亡原因統計資料를 利用하여 韓國人の 死亡力 構造의 特徵을 死亡原因과 關聯시켜 研究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이 綜合될 수 있다.

첫째, 40代 이후 男性의 높은 死亡力에 寄與한 要因들은 ‘腦血管疾患’, ‘高血壓性疾患’, ‘肺疾患 및 其他 心疾患’ 및 ‘胃의 惡性新生物’ 順으로 重要하게 나타났다.

둘째, 0歲에서의 男·女 間의 期待餘命의 差異는 幼年 또는 青年層에서의 男·女 間의 死亡力 差異에서 보다는 40代 이상의 中壯年層에서의 男·女 間의 死亡力 差異에서 비롯되었으며, ‘腦血管 疾患’, ‘慢性 肝疾患’ 및 ‘硬變症’, ‘高血壓性疾患’, ‘胃의 惡性 新生物’, ‘肺疾患 및 기타 心疾患’ 및 ‘肝의 惡性新生物’ 疾患들이 中壯年層에서의 男·女 間의 死亡力 差異를 決定하는 데 主役割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의 年齡 間 및 男·女 間의 死亡力水準의 差異를 決定짓는 主要한 社會的 間接要因들로는 첫째, 社會·經濟開發과 함께 이에 並行되어 온 保健政策들이 主로 어린이 또는 女性에 偏向된 結果였으며, 둘째, 環境의 要素로서 中年男性들이 Social stress, 運動不足과 관련된 疾病들(‘腦血管疾患’, ‘肺疾患 및 其他 心疾患’ 등)과 公害, 먼지, 有害化學物 가스 등 産業災害와 관련된 疾病들(‘肺의 惡性新生物’, 慢性 및 症勢不明의 氣管支炎’, ‘肺氣種 및 喘息’ 등)에 의한 死亡率이 높으며, 셋째, 行爲的 要素로서 飲酒(‘慢性肝疾患 및 硬變症’, ‘肝의 惡性新生物’, 高血壓性 疾患’ 및 ‘腦血管疾患’ 등)와 吸煙(‘腦血管疾患’ 및 ‘氣管, 氣管支 및 肺의 惡性新生物’ 등)과 관련된 疾病들에 의한 中年男性의 死亡率이 높은 것들로 要約될 수 있다.

中年男性의 높은 死亡率은 技術的·社會的 經驗이 蓄積된 勞動力의 喪失로서 國家的 損失이 크며, 高年齡層 人口의 構造의 側面에서도 性的 不均衡을 招來하여 寡婦女性의 增加 등 社會的인 諸般問題의 主要한 原因이 되므로서 그 重要性은 至大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國家的·社會的 次元에서 解決이 時急하며, 그 解決策으로는 지금까지 度外視 되어왔던 中年男性의 健康을 위한 프로젝트의 實施와 함께 이들에게 露出되어 왔던 運動不足, 社會的 스트레스 및 産業災害의 解消 내지 除去에 대한 方案들이 講究되어야 하겠다. 한편, 飲酒 및 吸煙 등의 個人行爲的 習慣의 改善을 위한 社會啓蒙活動의 增進 및 健全한 스트레스 解決策의 開發이 緊要하다고 하겠다.

(單位：%)

地域	出生兒				人口 (1988)
	1985	1986	1987	1988	
全國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	25.01	24.89	24.98	25.86	24.56
釜山	8.77	8.81	8.87	8.86	8.82
大邱	4.60	4.74	4.84	4.85	5.16
仁川	4.11	4.21	4.37	4.58	3.70
光州	—	—	1.99	2.29	2.69
京畿	13.60	14.80	15.68	16.60	12.64
江原	3.96	3.87	3.72	3.47	4.01
忠北	3.18	3.12	3.06	2.84	3.26
忠南	6.65	6.56	6.35	6.04	7.18
全北	4.74	4.48	4.25	3.98	5.11
全南	8.31	7.89	5.50	4.70	6.18
慶北	6.89	6.64	6.53	6.16	6.89
慶南	9.17	9.00	8.90	8.89	8.61
濟州	1.03	0.99	0.96	0.90	1.10

## 2. 死亡申告

## 1) 年齡別 死亡率 (ASDR)

(單位：人口 千名當)

年齡	男子				女子			
	1985	1986	1987	1988	1985	1986	1987	1988
合計	7.2	7.1	7.0	6.8	5.2	5.1	5.2	5.0
0	14.84	13.56	12.50	12.50	14.52	13.45	12.00	12.00
1-4	1.67	1.54	1.41	1.27	1.52	1.34	1.28	1.16
5-9	1.00	0.91	0.88	0.88	0.85	0.77	0.77	0.65
10-14	0.68	0.62	0.63	0.60	0.51	0.50	0.55	0.45
15-19	1.57	1.48	1.42	1.33	0.88	0.81	0.69	0.65
20-24	1.94	1.74	1.70	1.58	1.03	0.91	0.94	0.82
25-29	2.31	2.32	2.31	2.24	1.10	1.07	1.07	0.99
30-34	2.76	2.79	2.93	2.74	1.30	1.29	1.25	1.06
35-39	4.07	4.14	3.99	4.00	1.74	1.81	1.72	1.65
40-44	7.02	6.59	6.14	5.68	2.83	2.69	2.55	2.23
45-49	10.39	10.17	10.11	9.93	4.05	3.79	3.84	3.60
50-54	14.23	14.03	13.74	13.31	5.86	5.65	5.51	5.04

年 齡	男 子				女 子			
	1985	1986	1987	1988	1985	1986	1987	1988
55-59	21.43	20.14	19.72	18.14	8.68	8.32	8.19	7.71
60-64	33.19	31.33	30.53	27.66	13.23	12.59	12.82	11.48
65-69	50.33	49.71	48.56	46.41	22.69	22.13	20.93	20.75
70-74	76.07	74.40	73.69	71.67	38.28	37.43	38.14	36.50
75-79	117.95	118.81	118.98	114.49	63.56	63.04	63.86	62.24
80 이상	238.08	246.70	245.58	229.27	153.04	156.20	161.19	153.72

- 申告에 의한 年齡別 死亡率을 보면, 男·女 모두 全 年齡層에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歲 死亡申告는 出生後 短期間內에 死亡함으로써 出生 및 死亡申告가 同時에 漏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推定 補完된 0歲 死亡의 30% 정도만 申告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 年齡別 平均壽命 推移

(單位：歲)

性別	1970	1980	1985	1986	1987	1988
計	63.2	65.8	68.7	69.2	69.5	70.1
男 子	59.8	62.7	64.6	65.1	65.4	66.0
女 子	66.7	69.1	73.1	73.6	73.8	74.5

- 우리나라의 平均壽命은 持續的으로 높아져 1988년에는 70.1歲로 나타남.
- 1988年の 경우 女子와 男子의 平均壽命의 差異가 8.5歲로 상당히 크게 나타남.

## 3) 外國과의 平均壽命 比較

(單位：歲)

國家	年度	計	男子	女子
韓 國	1988	70.1	66.0	74.5
日 本	1985-90	78.2	75.4	81.1
스웨덴	1985-90	77.1	74.2	80.1
美 國	1985-90	73.6	71.9	75.4
中 國	1985-90	69.4	68.0	70.9
필리핀	1985-90	63.4	61.5	65.4
印 度	1985-90	57.8	57.8	57.9

- 日本, 스웨덴 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으로 보임.

資料：世界人口展望, UN(1988)